

2003년 비료 생산 · 출하 잘했다!

2003년 1-11월 생산실적 310만1000톤 ... 출하량은 398만1000톤

2003년 1-11월 국내 비료 생산실적은 310만1186톤으로 전년동기대비 3.1%, 출하는 398만1129톤으로 2.3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비료협회에 따르면, 요소 생산은 20만5383톤으로 2002년 1-11월에 비해 62.65% 수준에 그쳤으며 황산암모늄은 47만3299톤으로 96.6%, 인산단비는 5만711톤으로 80.8%, 황산가리는 6만3080톤으로 102.1%, 복합비료는 230만8783톤으로 111.9%로 각각 집계됐다.

출하량은 요소가 81만5291톤으로 88.0%를 기록했고 황산암모늄은 51만7565톤으로 111.6%, 인산단비는 7만4614톤으로 93.4%, 황산가리는 5만9677톤으로 87.0%, 염화가리는 18만8170톤으로 85.8%, 복합비료는 232만5912톤으로 109.0%를 나타냈다.

출하실적은 농업용이 가장 많은 170만8704톤이며 수출용 130만9374톤, 원료용 75만3823톤, 공업용 20만9228톤으로 집계됐다.

현재 국내 비료 생산기업으로는 남해화학, 동부한농화학, 삼성, 풍농, 조비, 신한중합비료, KG케미칼, 협화, 카프로, 포스코, 동서석유, 제이엠씨 등이 있다. <심혜련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12/31>